

한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

최영창 (국립진주박물관장)

발표 요지

16세기 말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은 한반도를 무대로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을 구원한 중국 명나라 등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참전한 국제전쟁이었다. 7세기 중반 백촌강 전투와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등과 같이 이전에도 한·중 연합군 대 일본군의 대결 구도로 동아시아 3국의 군대가 충돌한 전쟁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처럼 조선왕조와 근·현대 한국인들의 역사와 기억에 각인된 사건은 없었다. 근대 일제의 한국강점과 함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과 기억, 국민감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임진왜란이었다.

현대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70년대 민족주의에 바탕한 국난극복사관이었다. 국난극복사관의 영향으로 초기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관군에 비해, 의병의 활약상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부터 꾸준히 현창되어온 이순신 장군은 성웅聖雄으로 자리매김되고 조선 수군의 활약상도 절대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의병과 조선 수군의 승전만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난극복사관에 입각한 임진왜란 이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의 성격과 원인, 경과 영향, 명칭 등에 대한 한국의 시각을 소개한다.

略歷

〈최영창 / 崔永昌 / Choi Young-Chang〉

1964년 부산 출생. 1986년 고려대 사학과 졸업. 1989년 고려대 대학원 한국사 석사과정 졸업. 2003년 고려대 대학원 한국사 박사과정 수료. 1992년~2013년 문화일보 기자. 2006~2007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2013~2015년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연구실장 등. 2015년~현재 국립진주박물관장. 조선시대 수군과 임진왜란 당시 파견된 명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